



태성이앤씨 이동주 대표, 남원시에 고향사랑 기부

남원시는 유재태성이앤씨 이동주 대표이사가 27일 고향사랑기부금 최고액인 500만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동주 대표이사는 남원이 고향은 아니지만, 남원시 노암동에서 일류미술창호를 제작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평소 남원발전에 대한 관심이 많아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동참하였다.

이동주 대표이사는 “남원에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고향사랑기부까지 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남원발전을 위해 기부뿐만 아니라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으로 관심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협 전북도회, 남원시에 이웃돕기 성금

남원시 관계자는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회장 임근홍)가 27일 남원시청을 방문해 성금 5백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대한전문건설협회는 매년 이웃돕기 성금 기탁, 집 고쳐주기 사업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모범이 되는 기업이다.

임근홍 회장은 “나눔을 통해 따뜻한 연말을 선물하고픈 마음에 기부를 결정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남원시민을 먼저 생각해주시는 전문건설협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전달된 성금은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송림타울, 김제시에 이웃돕기 성금 1000만원 기탁

김제시 하동에 위치한 송림타울(대표 유경종)이 27일 관내 사회복지시설과 저소득 가정을 위해 써달라며 이웃돕기 성금 1천만원을 김제시에 기탁하며 ‘희망2024 나눔캠페인’에 동참했다.

에스엘컴퍼니(주) 송림타울 유경종 대표는 “추위자는 날씨 속에 이웃들의 시린 마음을 따뜻하게 데우고 살아갈 용기를 전해주길 바라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관심을 갖고 열심히 돋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정성주 김제시장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따뜻한 나눔 활동을 펼쳐준 에스엘컴퍼니(주) 송림타울에 감사드리며, 기탁하신 성금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관내 어려운 주민들에게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진안군 부귀면 한옥카페 ‘다못’ 착한가게 지정

진안군 부귀면의 새로운 명소로 주목받고 있는 한옥카페 ‘다못’이 착한가게로 지정됐다.

착한가게는 지역의 복지를 위해 매월 일정액 3만원 이상을 정기 후원하여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자영업 기업이다. 이러한 착한가게는 국세청의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27일에는 부귀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인 조봉진 면장과 박영춘 위원장이 함께 카페를 방문하여 착한가게 현판을 전달했다.

‘다못’은 옛 한글로 ‘같이 하다. 더불어 하다’라는 뜻의 순수 우리말이다. 강창용 카페 대표는 “카페 이름에 걸맞게 어려운 이들과 함께 하고픈 마음에 착한가게를 신청했다”며 착한가게 신청 동기를 밝혔다. /진안=우태민 기자

## “어려운 이웃에 희망의 온기를”

하림, 지역 내 저소득시설·가구 위해 라면 3000상자 기탁

하림그룹이 어려운 이웃에 따뜻한 온정을 전하기 위해 2024 희망 나눔 캠페인(사랑의 라면) 행사를 진행했다.

26일, 하림은 익산시종합운동장에서 관내 저소득시설 및 저소득가구를 위한 라면 3,000상자(1억 1,000만원 상당)를 기탁했다.

후원된 라면은 기탁식이 끝난 후 시설과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곳으로 전달되었다.

하림은 지난 16년 동안 매년 연말 차상위계층에 라면과 쌀 등의 식품을 후원하고 있다.

2008년 시작한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를 통해 독거노인과 소년소녀가장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가정 등 어려운 이웃에게 익산지역에서 직접 생산한 쌀을 제공해온으며 2022년부터는 디미식 장인리퍼먼스를 후원하며 지역밀착형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지역민을 위해 올해에도 많은 양의 라면을 기부해신 하림에 매우 감사드린다”며 “기부하신 뜻대로 시설과 각 가정에 잘 전달되어 드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정호석 시장은 “연말을 맞아 지역사회와의 쾌적계층에 계신 분들의 간단하고 건강한 식사를 위해서 지난해에 이어 프리미엄 디미식 장인리퍼먼스를 기부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의 온기를 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익산=이재춘 기자



농협 정읍시지부, 희망 나눔 농업인 송년 음악회 성료

정읍시 농·축협과 농협정읍시지부는 지난 26일 정읍시예술관 공연장에서 농업인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속에 2023 정읍시 희망! 나눔! 농업인 송년음악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윤준병 국회의원과 이학수 시장을 비롯, 도·시의원, 농업인단체장, 농촌 지원봉사단체, 유관기관장, 우수고객 등 6백여명의 정읍시민이 함께 참여해 멋진 감동의 무대가 됐다.

특히, 이번 음악회는 정읍시 농업인과 고객에게 문화예술을涵유할 수 있는 기회 제공과 농업·농촌 및 농협에 대한 관심과 사랑에 대한 보답을 위해 응원으로 모두가 하나가 되는 어울림의 정을 선사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공연은 전부 출신 이진권 단장의 지휘로 서울심포니 오케스트리와 팝페라기수, 정읍시립국악단 민요기수가 합동공연을 통해 관객들과 함께하며, 한겨울 밤의 아름다운 하모니를 펼쳤다. /정읍=김대환 기자

## 최경식 남원시장, 공간정보·지적재조사사업 공로 감사패

남원시는 최경식 남원시장이 지난 27일 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어명소)로부터 공간정보 및 지적재조사사업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 감사패는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상호 협력을 통해 남원시가 진행 중인 스마트밸리지 구축 및 지적재조사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더불어 드론을 활용한 미래 모빌리티 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한 최경식 남원시장의 공로에 감사를 담아 감사패를 전달하고 지속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현재 남원시는 12.5억 원의 사업비를 부담해 무인 자동비행 및 충전이 가능한 드론스테이션을 활용하여 남원시 지역을 활용하고 쓰레기 및 불법 소각장, 적폐 폐기물 등의 생활환경 위험요소를 검출하고 개선하는 스마트밸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지적재조사사업 분야에서는 최근 5년간 타 지자체 대비 4.5배 규모인 국비 55억 원을 확보하여 이웃 간 경계분쟁 해소와 시민 재산권 보호 및 디지털지적 구축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전국 최상위 수준의 국비를 기반으로 지적재조사사업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 정책기여도 등의 평가에서도 해마다 높은 평가를 얻어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로 2020년부터 4년 연속 지적재조사사업 최우수기관 수상을 하였다. /남원=김기두 기자



업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 정책기여도 등의 평가에서도 해마다 높은 평가를 얻어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로 2020년부터 4년 연속 지적재조사사업 최우수기관 수상을 하였다.

/남원=김기두 기자



김제시 연정교회 등, 이웃돕기 성금 200만원 기탁

김제시 연정동 연정교회(목사 조병남)와 교월동 새마을부녀회 정순임 회장이 희망2024 나눔캠페인에 동참해 교월동 내 저소득가정을 위해 100만원씩 총 200만원을 기탁했다.

지역사회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봉사활동에 앞장서는 정순임 회장은 “소외된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탁하게 됐다.”며 “어렵게 생활하는 지역 주민에게 잘 전달되어 따뜻한 겨울나기에 힘을 보태고 싶다.”고 말했다.

또한 전달식에 참석한 연정교회 조병남 목사는 “어려운 이웃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 위해 교인들과 뜻을 모아 성금을 기탁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 무주군, 2023 하반기 공무원 이임식 개최

무주군은 27일 무주군민의 집에서 2023년도 하반기 공무원 이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하반기 공로연수자 및 명예퇴직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이들의 공직 이후 삶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황인홍 무주군수를 비롯한 퇴직 대상자들과 가족 그리고 직원 등 1백여 명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퇴직하는 박태웅 무풍면장(지방행정사무관 32년)과 김경복 시설사업소장(지방방송통신사무관 38년), 이금희 진료팀장(지방보건주사 31년)등 퇴직자들을 응원하며 공로와 꽃다발 증정, 석별의 노래, 기념 활동의 시간에 함께 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젊은 날을 오롯이 무주군 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해 바친 여러분께 존경을 표한다”며 “여러분이 피워낸 무주라는 꽃의 실한 열매를 맺고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후배 공무원들이 마음 모아 더 열심히 뛰겠다”



라고 전했다. 이에 감사장을 전한 김경복 시설사업소장은 “몸은 무주군형을 떠나지만 마음과 열정은 항상 무주와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1억2천 장학금 정석케미칼에 감사패

(재)완주군인재육성재단이 10년 가까이 총 1억2000만 원을 기탁한 정석케미칼 주식회사(대표 김용현)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27일 완주군에 따르면 정석케미칼은 지난 2015년도부터 지역인재 양성과 장학 사업을 위해 현재까지 1억2,000만 원을 기탁하는 등 완주군 미래인재 육성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봉동을 완주산업단지에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정석케미칼은 도료 및 합성수지, 수처리제 등 기타 화학제품 등을 제조하는 기업으로 직원은 200여 명에 달한다.

김용현 정석케미칼 대표는 “지역을 이끌어갈 훌륭한 인재를 길러내는 데에 보탬이 되고자 장학금을 전달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발전에 꾸준히 기여하는 회사가 되겠다”고 밝혔다. /완주=염자복 기자



씨에스원드 대표, 정읍 산외면에 장학금 전달

정읍 출신인 씨에스원드(주) 김성권 대표이사는 27일 신이민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씨에스원드(주)는 서울 논현동에서 자리잡고 있는 중견기업으로, 태양광·풍력발전 타워를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있으며, 세계시장 1위의 점유율을 자랑하고 있다.

김 대표는 2019년부터 매년 1000만원씩 기탁해 현재까지 총 65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받은 장학금은 지역 내 중·고등학생 12명에게 각 50만 원, 대학생 4명에게 각 100만원씩을 전달했다.

김 대표는 “몸은 타지에 있지만 고향 후배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 장학금을 전달하게 됐다”며 “고향 후배들이 지역의 발전과 미래를 책임질 등장으로 훌륭하게 성장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이영식 부안관광호텔 대표, 장학금 1000만원 쾌척

부안관광호텔 이영식 대표는 지난 26일 부안군 근농인재 육성재단을 방문하여 부안군 인재육성 장학금 1,000만원을 쾌척했다.

이영식 대표는 2011년부터 매년 기탁에 참여하여 현재까지 1억 6,000만원을 장학금 기탁하며 지역사회를 봄소 실천하고 있다.

이영식 대표는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의 대학교 전학년 1,2학기 반값등록금 지원으로 장학사업이 지역의 든든한 범urd이 되어주길 바란다”며 기부 뜻을 전했다.

부안군근농인재육성재단 권익현 이사장은 “이영식 대표의 장학금에 매년 꾸준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부안=김석진 기자

## 남원 도통동 주민자치위, 자치사랑방 수강생 발표회

남원시 도통동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문강현)는 27일 동부노인복지관 2층 강당에서 시민·자치사랑방수강생·주민자치위원·지역주민·자생단체 회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 자치사랑방 프로그램 발표회를 개최하였다.

동부자치사랑방은 남원 도심중심지에 소재한 지역주민의 자기계발 및 평생학습 배움과 소통의 문화생활공간 마련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동부노인복지관에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분들과 함께하는 즐거움과 보고 배우고 느낄 수 있는 문화체험의 기회로, 풍물교실, 스포츠댄스, 즐비댄스, 하모니카교실, 노래교실, 한국무용, 웨일링댄스, 캘리그라피 전시 및 8개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이어진 2부 행사에서는 관내 기관단체장들의 기부물품으로 이어진 행운권 추첨 및 다파회를 갖고 전시된 작품을 즐기는 훈훈한 시간을 가졌다. /남원=김기두 기자